

오규 소라이의 이상사회론*

-『정담(政談)』에 나타난 개혁사상을 중심으로 -

임 태 홍**

kcjone@hanmail.net

〈 目 次 〉

- | | |
|-------------|-----------|
| 1. 서론 | 4. 통치의 방법 |
| 2. 통치자의 모습 | 5. 결론 |
| 3. 피통치자의 모습 | |

Key word : 오규 소라이(Ogyu Sorai), 개혁사상(reform thought), 이상사회(utopia), 정담(Seidan)

1. 서론

이 글은 일본 에도시대의 유학자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의 이상사회론을 『정담(政談)』에 나타난 개혁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오규 소라이는 고문사학(古文辭學)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창하여 독특한 유학사상을 구축한 사상가로 일본의 대표적인 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개혁사상’은 달리 말하자면 이상사회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거부하고 그 세계를 좀 더 다른, 더 좋은 세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전근대 일본 사회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2859)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동아시아학

1) 荻生徂徠著, 吉川幸次郎편(1973) 『政談』 『荻生徂徠日本思想大系36』 岩波書店. 현대어 번역에는 강담사(講談社)의 『정담』(尾藤正英 抄訳(2013) 『荻生徂徠『政談』講談社学術文庫)을 참조하였다.

대표적인 지식인이 추구했던 이상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정담』은 에도시대(1603~1868) 중엽, 소라이가 사망하기 직전인 1727년경에 완성한 것이다. 그는 1722년에 제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재임기간 1716~1745)의 신임을 얻어 그 자문이 되었다. 당시 쇼군은 비밀리에 수시로 소라이를 불러 에도 막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고 상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소라이가 나중에 정리하여 쇼군에게 올린 정책 건의서이다.²⁾

이 책의 제1권은 주로 정치문제, 제2권은 경제문제, 제3권은 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제4권은 기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격변하는 일본 사회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재 등용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로 언급되어 있다.

『정담』에 관한 내용은 집필 당시에는 막부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비밀에 부쳐졌다. 하지만 나중에 공개되어 에도 말엽에는 정치, 행정의 지침서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식인들이 읽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정담』이 일본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넓은 공감대를 받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정담』은 소라이 사상의 완숙기에 정리된 것으로 그의 학문적 방법론과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소라이학은 일본에 수용된 주자학이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중에 국학을 배태한 소라이학은 크게 보면 유교사상이지만, 그 내용은 이미 정통 주자학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우리는 『정담』을 통해서 소라이가 성리학을 비판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유학사상을 전개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아울러 당시에 에도시대 일본의 사회적 상황과 각종 제도가 잘 묘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학자 소라이의 현실 정치에 대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소라이는 『정담』에서 ‘이상사회론’이나 이상사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중국 고대의 삼대(三代), 즉 하은주 시대에 대해서

2) 임태홍(2010) 『일본사상을 만나다』 성대출판부 p.270.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고대 성인이 가르친 빈곤 구제 방법에 기묘한 술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왕이 시작한 하(夏), 탕왕이 세운 은(殷), 문왕과 무왕이 세운 주(周) 나라는 무엇이든 잘 다스렸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빨리 빈곤해지는 일은 없었다. 그 때문에 하, 은, 주 삼대는 모두 어느 시대나 500년 이상 길게 지속됐다.”(『정담』제2권) 그는 하은주 삼대가 무엇이든 잘 다스렸으며, 세월이 흘러도 빈곤해지는 일이 없었으며, 통치기간이 매우 길었다는 점을 들어 그런 사회가 『정담』에 제시된 개혁 방안의 목표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그의 개혁방안은 어떻게 빈곤의 문제를 없앨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에도 막부의 통치기간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일본 사회의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상세하게 논했다. 이러한 그의 개혁 방안을 통치자, 피통치자, 통치방법의 측면에서 종합하여 그가 말한 이상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담』의 내용을 분석하여 특히 그의 개혁사상에 나타난 이상사회를 1) 통치재(君主)의 측면, 2) 피통치자, 즉 백성(民)의 측면, 3) 통치방법(治道)의 측면에서 접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에서 발표된 소라이 관련 연구는 약 40여편으로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소라이의 『정담』을 텍스트 삼아 전문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소라이의 개혁사상이나 이상 사회론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고문사학에 대해서도 그동안 학계에서는 주로 학문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문사학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였는지, 소라이가 염두에 둔 이상사회는 무엇이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현실 적용의 측면에서 소라이학, 즉 고문사학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라이의 사상은 정치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는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도 국가의 정치 문제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정치사상을 다룬 연구는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박홍식(2009)의 「오규 소라이 禮治思想

의 의미」(『동양철학』32)가 있다. 그는 주로 『辨道』, 『辨名』, 『學則』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예치사상의 형성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소라이의 예치사상이 덕치를 현실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법치를 이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았다.(490쪽) 또 김대중(2007)의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본 탈성리학적 정치론-황종희, 오규 소라이, 정약용」(『한국실학연구』13)가 있다. 김대중은 『徂徠先生問答書』나 『政談』을 인용하여 소라이는 사적인 도덕 수양과 공적인 정치를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았는데.(222쪽) 소라이가 말한 정치란 결국 민(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통치술이고 하였다.(237쪽) 아울러 『辨道』를 인용하여 소라이가 예법이나 사회 제도적 통치질서를 중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13쪽.)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황종희와 정약용과 비교하여 소라이는 인간의 도덕성을 소거하고 ‘탈주체적이고 몰주체적인 인간상’을 세웠다고 주장했다.(212쪽) 이용수(2014)도 「일본 고학파의 정치관-이토 진사이와 오규 소라이의 위민 개념을 중심으로」(『한국철학논집』42)라는 논문에서 소라이의 정치관을 다루었는데 그는 소라이의 『學則』, 『辨道』, 『辨名』, 『太平策』 등을 근거로 선왕의 도와 예악형정, 그리고 안민(安民)과 지인(知人)의 개념을 논하였다. 이용수는 소라이의 정치관이 안민 천하의 정치관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도덕으로부터 정치의 독립’(260쪽)으로 정리하였다.

필자의 연구는 이들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자료의 면에서는 『정답』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기존 연구들보다는 자료이용의 폭을 좁힌 것이다.) 『정답』자체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답』의 독특한 면모를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답』에 천착하여 연구한 결과는 향후 소라이 사상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용면에서는 군주론(통치자의 모습), 인간론 혹은 국민론(피통치자의 모습), 그리고 통치론(통치의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앞의 연구들보다는 종합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소라이 정치사상을 좀 더 입체적이고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소라이학이 결국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소라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논문만 하더라도 약 30여편에 달한다.

그동안 발표된 논문은 300여편이 넘는다.³⁾

하지만 그중에서 소라이의 개혁사상이나, 이상사회론, 혹은 『정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개혁사상은 1편, 이상사회론도 1편, 『정담』 연구는 개론적인 성과까지 포함해서 10편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에도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점에서 『정담』 내용을 검토한 쓰카모토 마나부(塚本学, 1984)의 연구(『江戸における中央と地方-荻生徂徠『政談』を手がかりに』)가 있으며, 『정담』에 언급된 무사 토착론(武士土着論)의 배경을 분석한 쉬자성(許家晟, 『荻生徂徠の『政談』と『鈴録』について-武士土着論とその背景にある危機意識』, 2013)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정담』의 구성과 사회적 실천 문제를 검토한 요시오카 타카시(吉岡孝, 2011)의 연구(『荻生徂徠『政談』の構想と社会的実践の可能性』) 등이 있다.

쉬자성은 2014년에도 소라이의 막번체제 개혁구상 중 훈계제(勳階制)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 논한 바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소라이가 막부 체제 존속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위기감이 소라이 개혁방안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지적했다.⁴⁾

소라이가 꿈꾼 이상사회에 대해서는 기타노 유지(北野雄士)의 연구가 있다. 기타노는 요코이 쇼난(横井小楠, 1809-1869)과 소라이의 사상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사상 기저에 있는 유교문화와 이상 사회상을 분석했다. 그는 쇼난과 소라이가 수양을 통해서 인간의 기질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천(天)을 공경하며, 정치의 목적을 ‘안민(安民)’에 둔다는 점이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⁵⁾

아울러 기타노는 소라이 사상의 특징으로 사회적 질서, 즉 치안(治安)을 중시한다는 점, 농본주의(農本主義) 입장을 가지고 농민과 무사의 생활안정과 생계유지를 강조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⁶⁾ 마지막으로 그는 소라이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상으로 ‘요순 3대의 정치를 이상으로 삼고, 천(天)에 대한 사상

3) 일본 학술논문 검색사이트 <https://ci.nii.ac.jp/> (검색일: 2020년 5월 1일)에서 검색한 결과임.

4) 許家晟(2014) 『荻生徂徠の幕藩體制改革構想：勳階制導入構想に見える危機意識』 『東洋の思想と宗教』31 p.84

5) 北野雄士(2004) 『横井小楠と荻生徂徠思想の基底にある儒教文化と理想の社会像を巡って』 『大阪産業大学論集』人文科学編 112 pp.21-22

6) 앞의 논문 pp.23-24

을 가지고 안민(安民)을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다.’⁷⁾고 하였다.

기타노의 연구는 18세기 초반에 활동한 소라이와 19세기 중반에 활동한 쇼난을 비교하여 시대가 흐름에 따른 사상적 차이를 잘 보여주는 했지만, 소라이 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소라이가 제시한 ‘안민’의 백성(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지 않았다. 또 그들이 경제적인 안정은 향유할 수 있으나 신분적인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군주(쇼군)의 철저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타노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치자나 통치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염두에 두고 소라이가 지향한 이상사회의 모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통치자의 모습

소라이가 소망하는 유교적 이상사회에서 통치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는 『정답』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통치자, 즉 군주의 모습을 살펴본다.

일본 에도시대의 쇼군(將軍)은 당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최고 통치자였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에도(江戸)의 쇼군 위에 교토의 천황(天皇)이 있었다. 하지만 소라이가 활동하던 당시 교토 궁정에 있는 천황은 실질적인 통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에도의 ‘쇼군’이 사실상 최고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소라이도 『정답』 안에서 쇼군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쇼군이 천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전체는 모두 쇼군의 영지이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모두 불러들여 직접 사용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산다고 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다. 물건을 산다는 것은 원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무료로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쇼군으로서서는 일본

7) 앞의 논문 p.28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영지에서 나는 것이기에 무엇이든지, 즉 일본 안에서 생산 되는 모든 것은 쇼군의 물건이다.⁸⁾

소라이는 당시 에도시대의 경제적인 문제를 논하면서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언급 속에서 그는 쇼군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전체는 모두 쇼군의 땅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현실 정치에서 천황은 이미 지배력을 상실하고 의미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소라이의 사상세계 안에서 최고 통치자는 바로 쇼군이었다. 그는 이러한 쇼군을 고대 중국의 성인⁹⁾과 같은 존재로 상정하고 자신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소라이는 그의 개혁안에서 쇼군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제도를 만들어라’는 요구 외에 최고 통치자인 쇼군에 대해서 어떤 본격적인 논의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정담』에는 수많은 개혁안이 등장하는데 쇼군에 대한 항목은 없다. 제1권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방법, 2) 에도시가지와 무사 거주지에 대한 관리, 3) 계약직 하인의 관리, 4) 여행자의 체류에 대한 관리, 5) 호적, 6) 여행증명서, 7) 실직한 무사와 수도승의 관리, 8) 기녀, 배우, 그리고 거지의 관리, 9) 세습 하인, 10) 무사들의 생활방식을 바꿔야한다, 11) 해상 교통의 관리 등을 논하였다.

또 제2권을 보면 1) 경제 정책의 중요성, 2) 조급한 풍습을 바꿔야 한다, 3) 예법의 제도가 없다, 4) 막부의 재정, 5) 영주들의 빈곤을 구제하는 방법, 6) 무사들의 빈곤을 구제하는 방법, 7) 물가 문제, 8) 금은 수량의 감소, 9) 금전의 대차 거래, 10) 예법 제도, 11) 무가의 미곡 저장 등을 논하였다.¹⁰⁾ 이외에도 제3권은 주로 관료들의 문제를 논하고 제4권은 기타 다양한 문제를

8) 荻生徂徠 吉川幸次郎(1973) 『政談』2권 p.306

9) 소라이가 말하는 ‘성인(聖人)’은 전통적인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과 다르다. 유학에서 성인이란 도덕적인 완성자이며 수양공부를 통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한 사람을 뜻하지만 소라이의 성인은 ‘안민’을 위한 제도의 창작자를 뜻한다. 즉 나라를 연 임금이나 제왕의 직위를 가지고 예악(제도)을 창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통치자를 지칭한다. 제왕이라도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 없다.(함현찬(2015) 『『논어』에 나타난 오규 소라이의 聖人觀』 『양명학』41 p.338 참조).

10) 여기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강담사(講談社)의 『정담』 현대어 번역본(尾藤正英 抄訳 『荻生徂徠 『政談』』(講談社學術文庫 2013)의 1권과 2권의 목차이다.

논하였다. 그런데 쇼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다.

쇼군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다음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에도에 만연된 조급한 풍속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예법 제도를 정하는 것과 여행자와 같은 생활 방식을 중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빈곤을 구제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조급한 풍습은 쇼군의 생각이나 막부의 고위 관료(老中)의 생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중지시킬 방법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¹¹⁾

에도의 조급한 풍습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최고 통치자 쇼군의 생각과 그 밑의 고급관료들의 생각에 따른 것이므로 중지시킬 방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를 피했다. 그런데 그가 ‘조급한 풍습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개혁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요즘 세상의 풍습이 아주 조급하게 된 것은 원래 위정자가 정치의 도를 알지 못하고 법규만으로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意ノ我盡), 밑에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에도 성에서 쇼군을 알현하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을 때에도 영주나 막부 직속의 무사(旗本)가 두건(烏帽子)이나 옷깃이 긴 상의(直垂), 긴 바지(長袴) 등을 입은 모습은 예의가 바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양보를 하는 등의 아름다운 풍습은 없다.¹²⁾

위 인용문에서 ‘위정자’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쇼군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쇼군이 정치의 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여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풍습이 조급하게 되었다는 적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소라이는 그러한 ‘쇼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쇼군이 생각을 바꿔라든지, 넓은 아량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든지 하는 요구가 없다. 그 요구 대신에 소라이는 정치의 방법으로 ‘예법’의 제정을 언급한다. 예법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11) 荻生徂徠, 吉川幸次郎(1973) 『政談』2권 p.326

12) 앞의 책 pp.307-308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라이는 또 정부의 지출이 많고 사람들이 심하게 사치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하였다.

지금 막부의 관리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약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 유별난 물건을 좋아하는 쇼군의 습관도 바꾸려고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 당장 밥상 위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쫓는 것과 같은 것으로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¹³⁾

고위 관리들이 지출을 줄이려고 절약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쇼군의 습관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쇼군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쇼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¹⁴⁾ 쇼군의 마음도 막부

13) 앞의 책 p.317

14) 소라이가 쇼군에게 도덕적인 수양과 관련된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로 『정담』이라는 문헌이 쇼군과 상담하고 대담을 나눈 성격의 의견서라는 점도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쇼군의 면전에서 감히 쇼군에게 어떤 도덕적인 훈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 판단으로 소라이가 쇼군의 마음이 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쇼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는 젊어서 야나기사와 요시아스(柳沢吉保)의 자문관으로 있었을 때, 병든 어머니를 버린 농민의 처벌에 대해서 주자학적인 ‘마음’에 입각한 판단보다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처벌보다는 정치의 잘못을 봐야 한다고)을 건의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자문관 중에서도 경험이 많지 않은 신참이었으며 자기 상관인 야나기사와 뿐만 아니라 그 위의 쇼군도 마음의 수양을 중시하였고 대다수 의견도 주자학적 도덕에 의해서 불효한 농민을 처벌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라이는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그것을 관철시켰다.(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1995)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pp.180-182) 그리고 소라이는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와 비밀리에 막부의 개혁에 대해서 상의할 때, 막부 내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도쿄 시내에 있는 자신의 학당에서 유학 교사로 활동하는 자연인 신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일본 내에서 이토 진사이 뒤를 잇는 최고의 유학자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을 때였다. 소라이로서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쇼군에게 직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거기다 비밀리에 만나 상담에 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자유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라이가 쇼군을 도덕적으로 훈계를 하여 쇼군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평소 때부터 그러한 일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였다.(그는 자기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도 도덕이나 도덕적인 수양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도덕적인 수양을 무시하고 제도를 중시하는 생각은 소라이 사상의 특징이며, 그의 작품 곳곳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논어정·선진편』(荻生徂徠 『論語微』 『(日本名家)四書註釋全書：論語部5』, 關儀一郎

관리들의 논의로 고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최고 통치자인 쇼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 소라이는 이렇게 말한다.

군주로서 위에 위치한 사람은 천하나 세상의 일을 생각해서 힘을 다해 정권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천하 만민이 오랫동안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 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인의 도(道)이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약뿐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제도를 정하는 일이 쇼군이 할 일이라고 한다. 고대 성인이 추구한 정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제도, 즉 예약을 정하는 일이었다. 쇼군도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쇼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며, 그 주체가 할 일은 제도를 만드는 일,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인(聖人)의 도(道)¹⁶⁾라는 것이다.

編 東洋圖書刊行會 1926)에 “사람은 각자 자기 자질(즉 본성)이 있다. 비록 성인(聖人, 쇼군과 같은 통치자들·역자주)이라 할지라도 그 본성을 강제로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자질에 따라 그것이 충실하게 된다. 그가 성장함에 따라 덕은 그 본성(자질) 때문에 달라진다. 그래서 6덕이니, 9덕이니 하는 덕목이 있는 것이다.(人各有資質, 雖聖人不能強之, 故因其材而篤焉, 及其成也, 德以性殊, 故有六德九德之目)”라고 하였다.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인이나 쇼군에 대해서 ‘제도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라고 보았다. 『辨名』(荻生徂徠, 吉川幸次郎 편 『荻生徂徠(日本思想大系36)』岩波書店 1973 p.15)에서 그는 성인(즉 쇼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선왕(성인을 말하며, 역대 쇼군도 포함됨·역자주)의 총명함과 뛰어난 지혜의 덕은 천성으로 받은 것이다. 보통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배워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 주장이 없었다. 무릇 선왕의 덕은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겸비하여 이름을 붙이기는 것이 아니다.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제도를) ‘만든다’는 것 하나에서만 취할 뿐이다. 선왕은 나라를 열고 예약(제도)을 만든다. 이 한가지뿐이지만, 선왕이 선왕다운 이유는 역시 단지 이것뿐이다.” 성인은 도덕이 훌륭할 필요가 없으며 제도를 잘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라이의 인식에 대해서는 금장태·이우주(2001)의 「오규 소라이의 ‘도’ 이해와 성인론」(『인문논총』45, p.165), 柳生眞(2013)의 「근세일본사상의 성인관」(『퇴계학논집』12, p.248), 함현찬(2015)의 「『논어정』에 나타난 오규 소라이의 聖人觀」(『양명학』41, p.360), 이기원(2010)의 「소라이의 인간학·신체의 규율과 도덕의 행방」(『일본연구』14, p.515) 등을 참조할 것.

15) 荻生徂徠, 吉川幸次郎 편(1973) 『政談』2권 p.310

16) 소라이는 ‘성인의 도’를 예(禮) 혹은 예약(禮樂)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즉 옛 성인의 도가 지금 남아 있는 구체적인 형태가 ‘예’나 ‘예약’, 즉 제도라는 것이다(금장태(2004) 「치도(治道)의 원리와 실현 -다산과 오규 소라이의 『중용』 해석」 『다산학』5 p.360)

그는 제도가 정해지면 쇼군도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예법(禮法)의 제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상하 모두 절약을 지키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보다 좋은 제도가 없다. 막부에서 절약을 실행하고 세상에 모범을 보이려는 생각이 있더라도 제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들은 어떠한 규칙을 지키면 좋을지 모른다. 그리고 (막부에서 절약을 추진한다면 - 필자주) 단지 ‘윗분이 이상한 것을 좋아하여 소박한 물건을 사용한다.’는 등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뿐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쇼군의 검소한 생활도 제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시대가 바뀐 뒤, 즉 새로운 쇼군이 등장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검소를 중시하는 규칙이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¹⁷⁾

지금 쇼군이 검소한 생활을 하더라도 ‘제도’가 없으면 새로운 쇼군이 등장해서 자기 멋대로 무시해버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새로운 쇼군도 계속 검소하게 만드는 수단은 ‘제도’라는 것이다.¹⁸⁾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쇼군을 규정하는 것은 도덕적인 수양이 아니라 선왕, 즉 앞선 쇼군이 만든 제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제도를 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로는 영주로부터 아래로는 낮은 신분의 무사에 이르기까지 의복으로부터 주거, 그릇, 식사, 수행원의 수까지 각각의 관직이나 지위 봉록에 따라서 일정한 한도를 세워야한다. 그렇게 한다면 분에 넘치는 사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¹⁹⁾

사람들의 관직이나 지위에 따라서 한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검소한 생활도 가능하며 사회에 질서가 생기는 것이다.

17) 荻生徂徠, 吉川幸次郎(1973) 『政談』2권 p.339

18) 소라이는 항상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법을 모두가 받들고 따라야할 통치질서의 권위’로 강조하였다.(금장태, 『치도(治道)의 원리와 실현 -다산과 오규 소라이의 『중용』해석』 p.380) 그러므로 소라이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 쇼군이 제도를 정하면 다음에 등극하는 새로운 쇼군들은 모두 잘 받을 것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19) 荻生徂徠, 吉川幸次郎(1973) 『政談』2권 p.339

일반적으로 정통 성리학자들은 왕도(王道)와 패도(覇道)를 논하고, 정치를 혼란케 하는 존재로 폭군(暴君), 혼군(昏君), 용군(庸君)을 들어 설명한다.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통치자는 중국 고대의 오제(五帝)와 삼왕(三王)이다. 통치자는 그러한 성인(聖人)을 본받아 뜻을 세우고,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소라이는 인간의 기질이나 본성은 변치 않는다고 보았다.²⁰⁾ 그러므로 통치자는 도덕적인 수양이나 경전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재능을 발휘하여 사람을 잘 부려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성인(聖人)다운 군주의 할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통치자는 도덕에서 자유로 우며 도덕적 수양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피통치자의 모습

소라이가 제안한 피통치자, 즉 백성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는 특히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 즉 ‘안민(安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²¹⁾ 여기에서는 먼저 소라이가 말한 ‘안민(安民)’의 개념을 살펴보고, 소라이의 개혁안에 ‘안민’의 방안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고찰한다. 나아가 소라이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안민의 백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소라이는 『논어징』(학이편)²²⁾에서 ‘안민(安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20) 徳重公美(2010) 『荻生徂徠における人間観』 『大学院教育改革支援プログラム「日本文化研究の国際的情報伝達スキルの育成」活動報告書』 p.64

21) 소라이는 ‘안민(安民)’이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했는데 그는 군주의 천직(天職)이 안민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陳曉傑(2014) 『荻生徂徠における天の問題』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47 p.328) 그는 또 인(仁)을 안민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임옥균(2009) 『오규 소라이의 『논어』 해석의 특징(2) - 팔일 「리인」 편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60권 p.315, 임옥균(2008) 『오규 소라이의 『논어』 해석: 학이』 『동양철학연구』56 p.270)

22) 荻生徂徠 『論語微』(『(日本名家)四書註釋全書: 論語部5』 關儀一郎編 東洋圖書刊行會 1926. 오규 소라이 저, 임옥균 등역(2010) 『논어징1』(소명출판)의 번역을 참조함.

무릇 선왕의 도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도이다. 배우이란 그것(선왕의 도)을 배우는 것이고, 배우이 넉넉하면 벼슬하여 그 도를 행한다.(蓋先王之道, 安民之道也, 學者, 學之也. 學優則仕, 以行其道)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안민’이며, 그것은 선왕이 정치를 행하는 ‘방법(道)’이며, 목적이기도 하다. 또 소라이는 같은 책에서 『논어·학이편』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배워서 덕을 이룬 것을 군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기르는 덕을 이룬 것을 말한다.(學而成德曰君子, 謂成安民長國家之德)

유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뜻하는 군자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기르는 덕을 완성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안민’은 군자의 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안민은 유학자들이 배우는 목적이기도 하고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는 방법이고 또 목적이다. 이러한 이상을 소라이가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정답』이라는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백성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말하는 ‘편안함(安)’이란 어떤 것인가?

앞서 『정답』의 제1권과 제2권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정답』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국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 내부의 국민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백성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백성 중에서도 특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큰 사람들 예를 들면 계약직 하인, 여행자, 실직한 무사와 수도승, 기녀, 배우, 그리고 거지, 세습 하인 등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리고 제2권에서는 경제 정책의 문제, 제3권은 정부 조직과 관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했다. 제4권은 기타 잡다한 일의 처리방법 혹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대개는 모두 궁극적으로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 혹은 방법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여기서는 백성들, 즉 피통치자의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제1권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소라이는 에도에 너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시가지가 사방으로 팽창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바둑판에 질서 정연하게 선을 긋는 것처럼, 에도 전체를 확실하게 장악, 관리하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무사들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에도 일반 서민의 거주지처럼 거리마다 나무로 만든 출입구, 즉 ‘기도(木戸)’를 설치하여 출입구마다 지키는 사람, 즉 ‘기도 담당(木戸番)’을 둔다. 또 거리마다 담당자를 임명하여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각 거리에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도둑이나 혹은 사체를 유기하는 자가 있다면 출입구를 닫도록 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야간에 일어나면 각목을 부딪쳐 소리를 내거나 대나무 피리를 불어 인접한 거리, 거리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²³⁾

이러한 소라이의 주장을 듣다보면 소라이가 백성(民)을 통제의 대상이며, ‘예측불허의 위협적 요소’²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도는 쇼군이 있는 에도성을 중심으로 일반 서민의 거주지와 무사들의 거주지가 구분되어 있었다. 여기서 무사들은 주로 군인이나 공무원들을 말한다. 일반 시민은 대개 ‘조닌(町人)’으로 불렸다. ‘조닌’은 당시 도시에 사는 ‘상인’이나 ‘장인(匠人, 기술자나 수공업자)’을 뜻한다. 상인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보통 ‘조닌’은 상인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통치계급에 속한 무사들과는 다르고, 농촌에 사는 농민들과도 구별되는 존재로 ‘일반 시민’ 혹은 ‘도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막부는 수도에 해당하는 에도에 무사들과, 일반 서민들을 나누어 거주시켰다. 에도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은 ‘마치(町, 거리)’라 부르고 이곳에 상인과 장인들을 거주시키고 멀리 떨어진 언덕에 무사들을 거주시켰다. 인용문에서 제시한 소라이의 주장은 무사들도 일반 서민들의 거주지처럼 출입구를 만들고 담당 관리를 임명하여 통제를 하자는 것이다.

또 소라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3) 荻生徂徠 吉川幸次郎편 『政談』1권 p.265

24) 고희탁(2012) 『에도시대 ‘민’의 정치적 각성과 그 역설』 『일본사상』22 p.77

에도 중심지도 에도성에 가까운 수로 근처에는 출입구가 없으니 거기에도 출입구를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또 에도 시가지에서 좀 떨어진 농촌지역에 인접한 경계 구역에도 출입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나 중국의 옛날 법제(法制)에 따르면, 위와 같이하여 모두 야간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법이었다.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농촌과 접하는 지역에는 원래 외곽(外郭) 즉 바깥 성곽이라고 하여 땅을 빙 둘러 파고 독을 쌓는 것이 군사상의 방어책 중 하나였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출입구를 설치하여 경계로 삼는 일 정도는 필요하다.²⁵⁾

도시지역은 무사계급과 서민(조민)계급이 거주하고 농촌지역은 농민들이 거주한다. 상호간의 이동을 철저히 규제하고 소라이가 농촌과 도시 사이에 출입구를 설치하여 경계를 만들자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없어진다면 농민들은 점차로 도시의 상인으로 변해간다. 그러면 생산자가 감소하고 국가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농민이 상인으로 변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옛날부터 크게 기피하는 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²⁶⁾

농민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몰래 도시로 흘러들어 상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즉 직업의 이동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한 것이다.²⁷⁾ 상인들이 많아지면 국가가 가난해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옛날’, 즉 고대의 제도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또 그는 야간에 함부로 다니는 것을 금지해야한다고 통행금지 제도를 제안하였다.

25) 荻生徂徠, 吉川幸次郎편(1973) 『政談』1권 p.265

26) 앞의 책 p.265

27) 여기서 직업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농민이 그 직업을 버리고 도시로 도망가 상인이나 기술자가 되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상인이 기술자가 되고, 기술자가 상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라이는 기본적으로 많은 유학자들이 그렇듯이 ‘농본주의’적 입장에서 서 있다. 농민은 천하의 대본(大本)이요, 상업은 천하를 혼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입장에서 공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 오늘날에 말하는 다양한 ‘직업’들 상호간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무사들의 거주지마다 출입문을 설치하여 야간의 통행을 금지해야한다. 영주(大名)가 아니거나 혹은 하인에게 창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정도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특히 엄중하게 통과를 금지해야한다. 시가지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공무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개인적 일이라도 임신부나 급한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러 가는 산파, 즉 조산부(助産婦)나 혹은 의사 등을 보내고 맞이하는 경우에는 차례차례 통과시키면 된다. 순차적으로 거리에서 거리로 통과시키거나 금지한다면 위에 소개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²⁸⁾

무사들은 하급 군인이나 공무원, 즉 정부의 관리들이다. 그 무사들도 포함하여 에도 시가지 전체에 야간 통행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나쁜 일’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쁜 일이란 죽은 사람을 몰래 거리에 버리거나 방화범 혹은 도둑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²⁹⁾

소라이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좀 더 발전시켜 에도 막부 관리들의 거주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어떻게든 옛날의 법과 제도처럼, ‘반슈(番衆, 막부의 경비)’들이나 ‘요리키(興力, 상급 경찰로 도신의 상관)’, ‘도신(同心, 경찰)’들도 모두 같은 조직에 속한 자들은 한 곳에 함께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 그 조직의 대표자도 같은 곳에 거주를 시켜 다른 직책을 맡아 전근을 하거나, 신규로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를 바꾸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한다면 조직의 대표자는 자기 조직에 속한 자의 사람 됨됨이라든지 뭐든지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둑 담당 관리 등이 자기 부하의 나쁜 일을 모르는 경우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266쪽)

막부 안에서 경비나 경찰업무를 맡는 무사들이 사는 거주지를 한곳에 모으자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하급 경찰 공무원들의 조직을 거주지와 일치시켜 같은 조직은 같은 거주지에 살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는 “(옛날에) 모든 무가의 거주지도 원래는 직무상 하나의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의 거주지에 모아서 거주시켰다”³⁰⁾고

28) 앞의 책 pp.265-266

29) 앞의 책 吉川幸次郎編 『政談』1권 p.263

30) 荻生徂徠 平石直昭 監修(2011) 『政談』 東洋文庫 平凡社 pp.26-27의 주 해석 참고.

하였다.

소라이가 건의하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통치자의 입장에 서서 백성들과 공무원들을 잘 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안민’은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화제나 도둑 혹은 불결한 사건에서 보호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질서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라이가 『정담』 제1권에서 주로 제안하는 안민의 방책이다.

그의 ‘안민(安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본(民本)’의 개념과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민본’은 ‘백성을 국가의 근본(民惟邦本)’(『서경·夏書』)으로 본다. 그러나 ‘안민’은 ‘백성을 편하게 한다’는 것으로 사상적인 지향점이 다르다.

그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안민’의 구체적인 근거는 중국과 일본 고대의 제도이다. 예를 들어 그는 백성들을 토지에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치근본으로 되돌아가서 법을 재정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중국의 고대, 즉 하은주(夏殷周)라고 하는 시대에도,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도 혹은 일본의 고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정치의 근본은 아무튼 백성들을 토지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를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었다.

즉 안민의 방책은 ‘국가를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한’ 방법이며 그가 말한 ‘안민’이란 백성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통치자의 입장에서 ‘평화롭게 통치’하는 것이다. 백성들을 안락하게 하거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보다는 평화롭게 통치하는 곳에 중점이 있다.

그보다 40년쯤 뒤에 활동했던 안도 쇼에키(安藤昌益, 1703~1762)의 이상사회, 즉 자연세(自然世)에 나타난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소라이의 입장이 확연히 드러난다. 자연세는 신분의 구별이 없고, 남녀 차별이 없으며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도 없다. 국경도 토지 사유도 없으며, 사람들은 모두 평화롭게 경작을 하며 살고 부모를 공양하며 자식을 낳고 자율적으로 살아간다.³¹⁾ 이러한 모습은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소망하는 이상사회이다. 그러나 소라이가 말하

31) 박문현(1999) 『安藤昌益의 理想社會論』 『哲學論叢』 19 pp.207-215

는 사회는 통치자인 쇼군의 입장에 서있다. 제도에 의한 차별과 통제에 의해서 백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입장이다.

소라이가 말하듯이 백성들을 토지에 정착시킨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그는 위 인용문을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람을 토지에 정착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호적(戶籍)과 여행증명서(路引) 두 가지이다. 이것으로 세상에서 소속이 불분명한 자들이 없어진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단속하고 감독, 관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만백성이 하나, 하나 모두 ‘윗사람’의 손 안으로 들어간다. 말하자면 윗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따르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내부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윗사람의 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손 안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차이는 바로 이 점에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³²⁾

이 문장에서 ‘윗사람’은 고위 관리 혹은 통치자인 쇼군을 의미한다. 통치자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손안에 두고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민’의 최종 목표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제1권에서 에도 주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주로 논하였다. 그 주민에는 무사계급, 즉 군인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 즉 쇼군을 제외한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그는 에도에 너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각종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호적과 여행증명서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사람을 각자의 고향이나 영지에 고정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킬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라이가 염두에 둔 이상사회는 사실상 철저히 통제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구상하는 피통치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다. ‘안민’은 바로 이러한 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³³⁾

32) 荻生徂徠 吉川幸次郎(1973) 『政談』1권 pp.273-274

33) 고희탁(2012)은 이러한 백성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소라이에게 비친 ‘민’은 위로부터 던져진 안전한 생활의 영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수동적, 비정치적 존재이자 공격적

4. 통치의 방법

그렇다면 소라이가 말하는 이상사회의 ‘치도(治道)’ 즉 통치방법은 무엇일까?

『정담』의 제2권에서 그는 재정문제, 금융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를 논하였다. 당시 일본 사회는 상품 경제가 발달하고 화폐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상업이 크게 번창하였다. 에도를 중심으로 한 도회지 시민들은 갈수록 사치스러운 풍습에 젖어 소비가 늘어났으며, 상인들은 경제적인 부를 획득한 반면에 사회의 지도계급인 무사들은 오히려 궁핍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소라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사들이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예법(禮法)의 질서를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하였다.

이어서 제3권에서는 에도 막부에서 근무하는 관리의 처우와 직위, 봉록 그리고 4등관 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는 정부 조직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관직의 세습화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재 등용과 인재의 재능을 파악하는 방법과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제안하였다.

유가의 정치사상으로 ‘덕치주의’, ‘예치주의’, ‘인치(人治)주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법가의 법치주의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들 세 개념은 서로 다르다. 덕치주의는 덕(德)에 의한 통치, 예치주의는 예(禮)에 의한 통치,³⁴⁾ 인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

한국유학에서 ‘예치’는 덕치를 의미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라이의 개혁론을 보면 제도, 즉 ‘예(禮)’에 의한 정치는 도덕을 배제한 순수한 ‘예치’를

영역의 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비공공적 존재하는 성격이 강하다.’(『에도시대 ‘민’의 정치적 각성과 그 역설』 『일본사상』22, p.66)

34) 순자는 예와 악을 중시하고 예치를 주장하였다.(유희성(2001) 『순자철학의 이상사회론』 『사회와 철학』2 p.330, p.336) 또, 인간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사회규범으로 예를 제시하고 성왕의 정치, ‘선왕의 도’ 등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이해영(2017) 『순자의 이상사회론』 『유교사상문화』68 pp.254-258), 이는 소라이의 『정담』에 보이는 예치론과 매우 흡사하다. 田尻尚文(2013)는 소라이 『정담』과 『논어집』이 순자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荻生徂徠と荀子』 『中国研究集刊』57 pp.95-96)

뜻하는 경우가 많다. ‘예’는 원래 다양한 개념을 가진 단어다. 도덕이나 종교를 뜻하기도 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법도, 제도, 혹은 규율을 뜻하며, 사회적인 측면에서 질서, 인륜활동의 규범을 말하기도 한다.

소라이는 『정답』의 제2권에서 당시 일본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제도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고대 성인의 정치에서는 제도라는 것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 상하의 신분차별을 두고 사치를 억제하여 세상을 풍요롭게 해나갔다. 그것이 성인(聖人)의 뛰어난 정치술이었다.³⁵⁾

여기에서 소라이가 말한 ‘제도’는 바로 ‘예(禮)’, 즉 예법이다. 그는 천하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악(禮樂)’, 즉 제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여 행하는 정치, 즉 제도에 의한 통치(‘예치’)가 고대성인의 뛰어난 정치술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했다.

의복, 가옥이나 각종 그릇 혹은 혼례, 장례, 서신왕래, 그리고 수행 인원수까지 사람들의 귀천, 영지나 봉록의 크고 적음, 혹은 말은 바 직책의 종류 등에 따라서 각각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다.³⁶⁾

사람들의 귀천, 영지나 월급의 크기 혹은 말은 직책에 따라 각각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제도라는 것이다. 그는 “군주로서 위에 위치한 사람은 천하나 세상의 일을 생각해서 힘을 다해 정권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천하 만민이 오랫동안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 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인의 도(道)이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악(禮樂)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군주는 제도를 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옛 성인의 도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당시 막부의 현실을 이렇게 전했다.

35) 荻生徂徠 吉川幸次郎편(1973) 『政談』2권 p.311

36) 앞의 책 p.311

소군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시대에 『역경』을 읽는 강석(講釋)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명(命)을 받은 적이 있다.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에도 성으로 가서 강석의 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었을 때, 나는 힐끗힐끗 주위를 돌아보았다. 당시 고위 관리들(老中, 若年壽)이나 영주(大名)들, 무사(旗本)들 그리고 관직이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모두 우리들이 입고 있던 의복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의복을 입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너무도 상심하여 눈물을 흘리고 망연자실(茫然自失)한 적이 있었다. 어쨌든 요즘은 돈만 있다면 미천한 백성들이 영주와 같은 복장을 하더라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 단지 슬픈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곤란하면 지위가 높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깨가 움츠러지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의 세상 실태다.³⁷⁾

의복제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간의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라이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사치를 낳고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소라이는 『정답』에서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통치 방법으로서 도덕에 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정답』은 정치 제도, 경제 제도, 그리고 통치조직을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유학자이면서도 도덕은 중시하지 않았다. 그의 고문사학이 주자학과 크게 다른 부분이다.

예를 들면 그는 진정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먼저 법률이나 법규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다.

백성들 중에도 흉악한 자들은 법규를 잘 이해하여 법규의 그늘에 숨어서 나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법규만으로는 그들을 관리, 감독할 수가 없다. (중략) 뿐만 아니라 요즘 수령들은 세상의 풍조에 끌려서 매우 잘난체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친하게 대하지 않고 단지 법규를 내세우면서 응대하려고 한다. 그래서 상하 간에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가 없다.³⁸⁾

37) 앞의 책 p.314

38) 荻生徂徠 吉川幸次郎편(1973) 『政談』1권 p.277

법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는 법규만으로는 백성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한다.³⁹⁾ 그러면서 성인이 말하는 진정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

막부로부터 위임받은 영지 안에 있는 마을을 자기 집처럼 보살피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며, 어찌되었든 민간의 풍습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장들에게도 그 의도를 잘 납득시켜 백성들이 위정자를 경멸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는 것이다. 고대(古代) 성인이 말한 정치의 도(道)란 이런 것이다.⁴⁰⁾

고대 성인이 말하는 진정한 정치는 자기 영지 안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민간의 풍습이 좋아지게 하며, 통치자를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은 도덕을 가르쳐서 될 일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백성에게 효도(孝)와 공경(悌)의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으뜸이다.’고 한 것을 유학자들에게 강론을 하게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백성들의 도덕심을 일깨워 효도와 공경의 덕목을 실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동네, 한 마을마다 주민이 서로 화목하고 민간의 풍조가 올바르게 되도록 행정 책임자, 즉 수령이 지도해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효도와 공경의 덕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인 것이다.⁴¹⁾

‘효도와 공경의 덕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행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장에서 ‘도덕’이란 불필요한 것이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이 서로 화목하고 민간의 풍조가 올바르게’ 통치자가 지도해나가는 것이 바로 ‘효도와 공경의 덕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이 서로 화목하고 민간의 풍조가 올바르게 되도록’ 정치를 할 것인가?

39) 소라이는 법률에 의한 통치, 즉 법치(刑政의 정치)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예치 사상은 법치와 덕치의 보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박홍식(2009) 『오규 소라이 禮治思想의 의미』 『동양철학』32 p.483)

40) 荻生徂徠 吉川幸次郎(1973) 『政談』1권 p.277

41) 앞의 책 p.277

농촌에서라면 하나의 군 단위 전체에 해당되는 지역을 한 사람의 수령이 다스리더라도 전념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진정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도의 시가지와 같이 넓은 곳에서, 주민의 숫자도 매우 많고 지금까지의 풍속도 매우 문란해져있다면 한사람의 힘으로는 좀처럼 어찌할 수가 없다. 예도의 시가지를 네 구역, 혹은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역마다 그곳을 다스리는 수령을 두고, 각자의 지배영역을 한정해서 다스리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진정한 정치를 실시하려고 생각해도, 어찌되었든 앞서 설명한 호적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⁴²⁾

말하자면 ‘제도’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것은 한 사람의 수령이 잘 다스릴 수 있게 구역을 나누고 호적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주민들이 서로 화목하고 민간의 풍속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마음이나 인도(仁道)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또 아랫사람들의 범규위반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다스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랫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그들에게 대항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사람들을 지배하는 도(道)의 도리에 반하는 것이 된다. 진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일은, 자신의 지배영역이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조직의 부하들을 주군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끝에서 끝까지 한사람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일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을 성인의 도에서는 ‘백성의 부모(民之父母)’라고 말한다. 또 ‘인의 도(仁道)’라고 말하기도 한다.⁴³⁾

‘백성의 부모’라는 말은 언뜻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자를 떠올리기 쉽다. 우리는 ‘사람들의 일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인자한’ 마음, 혹은 ‘사랑하는’ 마음을 전제로 한 행동일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 하지만 소라이는 그러한 추측이 잘못이라

42) 앞의 책 p.277

43) 荻生徂徠 吉川幸次郎편(1973) 『政談』3권 pp.391-392

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仁)’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주자학의 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 즉 단지 아랫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 혹은 아랫사람에게 대해서 신의(信義)를 지키고 도리(道理) 그대로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도 되어있으나 그런 것도 아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는 때리는 일도 있는가 하면 엄격하게 꾸짖는 일도 있다. 그리고 속이는 일도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랫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일도 있지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마음을 써서 도움을 주고 어찌되었든 아랫사람들의 생활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仁)’이다.⁴⁴⁾

통치자가 아랫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도움을 주고 그들의 생활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인(仁)’이다. 거기에 사랑이 개입될 필요도 없고 인자함도, 신의도 필요 없다. 단지 잘 도움을 주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진 일’이다.

이렇듯 그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통치의 방법은 도덕이나 법률도 아니고 ‘예법’, 즉 제도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소라이의 『정담』을 통해서 그가 꿈꾸던 이상사회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본문에서는 통치자의 모습, 피통치자의 모습 그리고 통치의 방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소라이가 제안하는 통치자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당시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에도의 ‘쇼군’이 사실상 최고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현실 정치에서 천황은 이미 의미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소라이에게 최고 통치자는 쇼군이였다. 그는 바로 이 쇼군을 고대 중국의 성인과 같은 존재로 상정하고 자신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의 개혁안에서 최고 통치자

44) 앞의 책 p.392

인 쇼군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그것은 개혁의 주체가 되어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바로 그것이 옛 성인(聖人)의 도(道)라고 소라이는 역설하였다. 쇼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순자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본성은 변치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도덕적인 수양이나 경전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재능을 발휘하고 사람을 잘 부려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성인(聖人)다운 군주의 할 일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그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통치자는 도덕에서 자유로웠다.

본문에서는 다음으로 이상사회의 피통치자, 즉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소라이는 특히 ‘안민(安民)’,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백성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담』은 그러한 방법을 모색한 책이다. 그는 『정담』 제1권에서 에도 주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논하였는데, 거기에서 그는 에도에 너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시가지가 사방으로 팽창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그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각종 대응책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호적과 여행증명서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사람들 각자의 고향이나 영지에 고정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킬 방법을 제시하였다. 무사들도 에도에 모여 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지에 거주해야 사회가 더 안정되며 무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제안을 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백성들은 수동적이고 감시의 대상이 되며, 적절하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소라이는 판단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사회의 통치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소라이는 제도에 의한 통치, 즉 예치를 주장하였다. 그는 『정담』에서 당시 일본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제도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소라이가 말한 제도는 바로 ‘예(禮)’, 즉 예법이다. 그는 천하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악(禮樂)’, 즉 제도라고 하였다. 소라이는 또 제도에 의한 통치, 즉 ‘예치’가 고대 성인의 뛰어난 정치술이라고 하였다. 그는 유학자이면서도 도덕은 중시하지 않았다. 『정담』에서 그는 도덕에 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라이의 고문사학이 추구한 이상 사회는 중국의 고대사회였다. 하지만 그 사회는 통치자가 예(禮)와 악(樂), 즉 제도를 통해

서 백성들을 잘 통제하는 사회다. 그는 이러한 이상사회를 일본의 현실 상황에 적용하여 에도 막부의 쇼군(將軍)이 중국 고대의 성인들처럼 백성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상으로 소라이의 이상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서론의 각주에서 필자가 지적하였듯이 소라이는 『정답』에서 이상사회론에 대해 총론적인 논의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중국 고대의 하주 삼대의 사회를 이상사회로 전제하고 어떻게 하면 에도 막부가 빈곤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또 어떻게 하면 일본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막부가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바탕으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소라이의 개혁방안을 통치자, 피통치자, 통치방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하여 그가 제시한 사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필자의 결론은 그가 원하는 사회는 통치자가 제도를 만들어 백성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상하 간에는 예법을 통해서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집단 간에는 잘 설계된 구획을 바탕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혼란을 방지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는 소라이가 중국 고대 사회를 염두에 두고 제시하였지만 결국은 소라이 자신의 생각이 가미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 사회의 모습이 소라이만의 독특한 사상인지 ‘일본적’인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일본 내 유학자들 사상과의 비교, 나아가 한국 유학자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參考文獻>

- 고희택(2012) 『에도시대 ‘민’의 정치적 각성과 그 역설』 『일본사상』22 pp.66-67
 금장태(2004) 『치도(治道)의 원리와 실현 -다산과 오규 소라이의 『중용』해석』 『다산학』5 pp.360-380
 금장태·이용주(2001) 『오규 소라이의 ‘도’ 이해와 성인론』 『인문논총』45 p.165
 김대중(2007)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본 탈성리학적 정치론』 『한국실학연구』13 p.13, pp.212-237
 마루야마 마사오저, 김석근 역(1995)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pp.180-182
 박문현(1999) 『安藤昌益의 理想社會論』 『哲學論叢』19 pp.207-215

- 박홍식(2009) 「오규 소라이 禮治思想의 의미」 『동양철학』32 pp.483-490
- 오규 소라이 저 임옥근 등 역(2010) 『논어징1』 소명출판 선진편 참조
- 柳生眞(2013) 「근세일본사상의 성인관」 『퇴계학논집』12 p.248
- 유희성(2001) 「순자철학의 이상사회론」 『사회와 철학』2 pp.330-336
- 이기원(2010) 「소라이의 인간학-신체의 규율과 도덕의 행방」 『일본연구』14 p.515
- 이용수(2014) 「일본 고학파의 정치관-이토 진사이와 오규 소라이의 위민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42 p.260
- 이해영(2017) 「순자의 이상사회론」 『유교사상문화』68 pp.254-258
- 임옥근(2008) 「오규 소라이의 『논어』해석: 학이」 『동양철학연구』56 p.270
- _____ (2009) 「오규 소라이의 『논어』해석의 특징(2) -팔일 『리인』편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60권 p.315
- 함현찬(2015) 「『논어징』에 나타난 오규 소라이의 聖人觀」 『양명학』41 p.338, p.360
- 荻生徂徠, 吉川幸次郎譯(1973) 「辨名」 『荻生徂徠(日本思想大系36)』 岩波書店 p.15
- _____ , 吉川幸次郎譯(1973) 「政談」 『荻生徂徠(日本思想大系36)』 岩波書店, pp.263-339
- _____ , 尾藤正英 抄訳(2013) 『荻生徂徠「政談」』 講談社学術文庫
- _____ , 平石直昭 監修(2011) 『政談』 東洋文庫 平凡社 pp.26-27
- _____ , 『論語徴』(1926) 『(日本名家)四書註釋全書: 論語部5』 關儀一郎編, 東洋圖書刊行會
- 北野雄士(2004) 「横井小楠と荻生徂徠思想の基底にある儒教文化と理想の社会像を巡って」 『大阪産業大学論集』人文科学編 112 pp.21-28
- 許家晟(2014) 「荻生徂徠의 幕藩體制改革構想: 勳階制導入構想に見える危機意識」 『東洋の思想と宗教』31 p.84
- 田尻尚文(2013) 「荻生徂徠と荀子」 『中国研究集刊』57 pp.95-96
- 徳重公美(2010) 「荻生徂徠における人間観」 『大学院教育改革支援プログラム「日本文化研究の国際的情報伝達スキルの育成」活動報告書』 p.64
- 陳曉傑(2014) 「荻生徂徠における天の問題」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47 p.328

접수일: 2020년 07월 08일

심사완료: 2020년 07월 24일

게재결정: 2020년 07월 30일

<Abstract>

Ogyu Sorai's Theory of Utopia—Focusing on the Reform Thought in *Seida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topia, or the ideal society of Ogyu Sorai(荻生徂徠, 1666~1728) through his *Seidan*(政談). The writer considers the image of Sorai's ideal society in terms of the ruler's state, figure of the governed people and the method of rule, as follows. Firstly, about the ruler's state, Sorai suggested that the ideal ruler has unlimited absolute power, and no moral obligation is imposed. Secondly, on the figure of the governed people in the ideal society, Sorai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making the people comfortable. He discussed how to control the inhabitants of Edo city in *Seidan*, Volumn 1. In the book, he pointed out that too many people had flowed into Edo, the order was collapsing, and various crimes were increasing. With this in mind, he presented various countermeasures. Lastly, Sorai asserted the governance by system, or 'the rule by rites(禮治)'. He, in the *Seidan*, pointed out that the most big problem was that there was not system at that time in the Japan society.